

엄벌 탄원서

사 건 2024고단5627

피 해 자 박진미
(탄원인)

피 고 인 이평기
(피탄원인)

탄 원 취 지

위 탄원인 박진미(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는 피탄원인 이평기(이하 “피고인”이라 합니다)에게 성폭행 관련 범죄행위를 당하여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 절차에서도 거짓된 행동으로 저의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 원 내 용

1. 저는 하루하루 정신과 약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과 약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추가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에서 앞으로의 사업을 위하여 꿈이 많은 여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저 혼자 있는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지금 저는 저의 몸이 아닌 것처럼 정신과 약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3개월째 불안,

수치심, 심한 공황증상 등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아지는 증상이 전혀 없어 저에게는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티관련 창업을 하여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으로 인하여 저의 인생은 무차별하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현재는 탄원인이 사업을 전혀 관리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① 정신적인 심리치료 및 정신과 약물을 먹으며 하루를 버텨야 하고, ② 부티관련 창업을 해외확장의 기회까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버려야 하며, ③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 앞으로 저의 인생이 점점 무너져 가는 등 정신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함께 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2. 피고인은 이러한 저의 무너진 생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범죄행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함으로 반성 아닌 반성을 하는 척하며 재판장님께도 거짓말을 하는 등 사람으로서 하여서는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재판장님께도 거짓말 하며 법정 절차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며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면 긴장하여 떨며 자신이 행한 행동을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이 전혀 없이 자주 온 장소처럼 너무 친밀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저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까 봐 정신적

으로 더욱 힘들어하며 심리치료에 힘을 쏟아 예전의 저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 미칠 지경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모두 거짓된 행동입니다. 법원에 서 가장 훌륭하신 재판장님께도 거짓말을 한 피고인은 앞뒤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만 줄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전 1개월간 발리까지 가서 서핑하며 여자들까지 유혹하였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직전까지도 발리에서 여자들과 서핑을 즐기며 비장적인 행동을 보이고 재판에서는 반성하는 척 울부짖는 피고인의 이중적인 태도에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밝혀졌지만, 피고인은 너무 당당하게 자신은 서핑하러 간 것이 아닌 일을 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조차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알몸이 노출되는 촬영으로 그 영상물이 어디론가 공유가 된다면 생명을 마감하는 피해자들이 분명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닌 머릿속에 다른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있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3. 저는 예전처럼 당당한 여자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서 숨방망이 처벌이 아닌 저의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에 비례 되는 처벌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언제 저의 삶이 마지막이 될지도 저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제가 예전에 담당하게 살아온 여자로 다시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저의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는 희망은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며 그 희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아픔의 일부는 치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자신의 희망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4. 피고인은 초범이 아닐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검토하신 후 저의 억울한 심정을 일부라도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를 본 것은 저인데 왜 제가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피고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생활을 더욱 즐기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처럼 형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여도 형량을 줄일 수 있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피해자들만 바보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처럼 반성을 하지 않고 재판장님에게도 거짓말을 한 범죄자에게 일부의 선처를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모든 범죄자들은 추가적인 범행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떠난 살인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로 자신의 죄값을 받아 저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5년 01월 11일

위 피해자 : 박 진 미

